

“구아는 대로 들어 주시는 하나님”

약4:1-5

사람의 인체는 모두 3 조 정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 성장 후 죽게 되고, 그 자리는 새로운 세포로 채워지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결코 죽지 않고 끊임 없이 자라나는 세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을 영어로 ‘통제되지 않는 성장(Uncontrolled growth)’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암세포가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자라나기 위해서 다른 세포들의 영양분을 혼자서 독식하며 끊임없이 자리를 옮기며 전이시키기 때문입니다. 결국 암세포의 본질을 말하라면 욕심에서 비롯된 탐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갈망을 위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하며, 또한 그러한 욕망의 채워지지 않음을 통해 항상 불안해 합니다.

인간의 갈급함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과 불안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추구는 하나님에 대한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욕심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욕심입니다. 낙타무릎 ‘기도의 사도’인 야고보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 16:24)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 몸은 3 분이상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가 뇌에 공급되지 않아 뇌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 뇌사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 이옴 바운즈는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라고 했습니다. 기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생활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 하는 법은 가르쳐주시지 않았지만 기도하는 법은 성경을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교회에 몸이 불편하시면 항상 저에게 와서 기도 받으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분은 신기하게 기도하자 마자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다른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권사님에게는 즉각적인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에게는 기도를 통해 낫는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돌부처나 서낭당 나무와 같이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구할 때는 상식이나 자연법칙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약 1:6-7)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우리에게 준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 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못 기다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만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2. 공격적으로 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작은데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원대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한한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기도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 7:7)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사도바울은 딤후 2:3 에 우리들을 ‘영적군사’라고 했습니다. 군사라면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흑암의 세력,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과 디모데후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통해 계속 두드리고 공격하라!’ 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침노’라는 말은 전투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 계속 공격하고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전심, 전력을 기울여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평생 영적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공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3.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통곡을 하고 울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 주되 코에서 고기냄새가 날때까지 한달동안 고기를 먹여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라며 의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매 온 사방에서 메추라기가 날라오는데 사방으로 80 리길 80 리길에 1 미터 두께로 메추라기가 비같이 쏟아졌습니다. 광야에서 소 420 만 마리 분량되는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와같이

쏟아지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전화번호는 렘 33:3 절입니다.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약 4:2)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인간적으로 싸우고 죽이고 해도 얻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면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하면 반드시 얻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결정된 운명도 바뀝니다. 야베스도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흔히 IQ 좋은 사람을 머리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운 사람입니다. 왜냐 기도를 통해 상상 이상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야곱이 된 것은 압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사건, 곧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천국보물 창고를 여는 기도생활을 통해 기도승리, 인생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이번 주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으며 내가 적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2.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기도의 자세 중에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3. 믿음의 기도, 공격적인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이겨낸 사례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4. (세상적 욕망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해야 할 거룩한 욕심은 무엇입니까?
5. 지난 한 주간 동안 행하신 VIP를 향한 실천 프로젝트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6. 10월 20일 사랑나눔축제를 준비하며 VIP로 품을 영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